



# '5월 이야기' 무방비로 허허 거리다 뒤통수를 뒤통 맞았다

## 연극 '푸르른 날에' 서울 공연 리뷰

배우들 열연·음악 조화 감동 여전

김남주 시 '학살 2' 낭송 팬 전용이

내달 13일~22일 광주 팬 만나다

2012년 서울에서 연극 '푸르른 날에'를 처음 접했을 때가 기억난다. '5·18'을 소재로 한 작품이고, 2011년 초연 당시 대한민국 연극대상 작품상을 수상하며 평단과 관객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정보는 없었다.

극 초반에는 좌불안석이였다. 기존 접했던 5월 관련 작품들과 달랐기 때문이었다. 5월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는 걸까. 이렇게 계속 웃고 있어도 되는 걸까. 무방비 상태로 허허거리다 '오월' 이야기



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뒤통수를 뒤통 맞았다. 초반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객석 역시 한숨과 탄식이 나오고, 눈물을 쏟는 이들이 많았다.

2년만에 다시 연극 '푸르른 날에'를 만났다. 지난 24일 찾은 서울 남산예술센터 드라마다에서 열린 연극 '푸르른 날에'의 감동은 여전했다. 여전히 웃겼고, 아팠고, 슬펐다.

'푸르른 날에'는 5·18 당시 전남도청에서 붙잡힌 야학 교사 오민호와 그의 연인 윤정혜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날의 광주와 그 이후 30년의 이야기를 다룬다. 살기 위해 비겁자가 된 오민호는 고문 후유증과 죄책감으로 삶을 포기할 지경이 되고 결국 불가에 귀의한다. 보성 차밭이 보이는 암자에서 수행중이던 그는 조각이자 '말'인 윤화의 결혼 소식을 듣게되고 그의 기억은 1980년 광주로 옮겨간다.

작품이 시작되기 전, 공연장에 들어선 관객들은 불상을 향해 절을 올리는 무대 위 한 스님의 모습을 목도하며 작품속으로 들어간다. 시작은 유쾌하고 발랄하다. 시종일관 유머와 유희를 잃지 않는 대사와 신파극에서나 볼 듯한 과장된 몸짓과 연기가 긴장감을 풀어준다. 초반의 이런 장치들은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5월 광주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해준다.

관객을 긴장하게 만드는 건, 1980년 오월 도청 장면부터다. '오월 어느 날이었다, 1980년 오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오월 어느 날 밤이었다.' 김남주의 시 '학살 2'를 배우들이 발을 구르며 낭송할 때 전용이 인다. 그 어떤 극적 장치보다도 그날의 긴박함과 오월 현장의 생생함을 단박에 보여주는 신이다.

작품 곳곳에 흐르는 음악은 감성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도청 안에 있는 이들이 마지막 죽음을 맞을 때 흐르는 '오월의 노래'의 원작 프랑스 샹송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 '봄별 내리는 날, 뜨거운 바람 부는 날'로 시작되는 '오월의 노래 2', 시민군이 부르는 폴 앵카의 '다이아나'와 핑크 플로이드의 'Another brick in the wall' 그리고 송창식의 '푸르른 날에'까지.

배우들은 이 연극의 가장 강력한 힘 중 하나다. 관객들을 아득하게 만드는 생생한 물고문 연기에, 개처럼 바닥을 기며 나락으로 떨어져 김남주의 '진혼가'를 읊조리는 민호 역의 이명행의 연기는 압권이다.

매해 공연마다 사발을 하고 완벽하게 여산 스님으로 분하는 김학선의 연기도 감동적이다. 잊을 수 없는 건, 여산 스님의 마지막 표정이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표정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2011년 초연 때부터 출연했던 이들이 그대로 봉진 앙상을 역시 강한 인상을 준다.

'푸르른 날에'는 '5월 연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 인생의 '푸르른 날'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과거의 자신과 화해하고 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날 인터뷰에서 고선웅 연출자와 출연 배우들은 광주 공연에 대해 감사함과 동시에 부담도 느낀다고 했다. '푸르른 날에'는 다소 낯선 공연이다. 특히 오월 그날을 직접 겪었던 광주 관객들은 일정 부분 불편함을 느낄지도 모르겠다. 광주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광주 공연은 오는 6월13일부터 22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티켓 가격 4만5000원~2만5000원. 문의 062-220-05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동심 꿈꾸며 행복 나누는...

롯데갤러리, 앙드레 단 작품전... 31일부터

'동심의 푸르름과 순수를 꿈꾸며 그려온 행복을 나누는 작가 앙드레 단.'

광주롯데갤러리가 31일부터 6월19일까지 프랑스 유명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화가인 앙드레 단의 작품을 소개한다.

'My Dear friends'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초창기 작품부터 대표 작품들의 원화, 판화 100여 점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초창기 일러스트 및 삽화 작업을 해오던 앙드레 단은 특유의 감성적인 붓 터치로 바탕으로 그림책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그림책 '내 친구 달'(1987)은 프랑스, 독일, 한국 등 20여 개국 13개 언어로 번역 출판되기도 했다.

'행복'이라는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는 그의 작품은 우정을 통한 행복, 따뜻한 꿈을 꾸는 행복, 함께 가는 여정을 통한 행복 등 우리가 일상에서 꿈꾸고 바라는 소소한 행복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다정한 색감과 다소 초현실적인 형태의 조합은 보는 이로 하여금 몽환적인 느낌을, 소박하고 정갈한 앙드레 단의 글씨체는 연령층에 관계없이 따뜻한 공감을 이끌어 낸다.

앙드레 단의 그림은 화려한 색감보다는 묘사하는 사물, 인물, 배경의 특징적인 색감만을 활용한다. 다양한 색을 쓰지 않고도, 한가지 색에서 나타나는 색의 풍부한 스케일과 세세한 묘사로 군더더기 없는 세련미를 만든다.

그는 프랑스 르몽드 등 세계 각국 주요시사지 및 패션지 등에 삽화를 게재해 왔고, 아동 도서 분야의 가장 유명한 상인 옥토곤상, 국제 아동만화 앵글렘상 등을 수상했다. 프랑스에서 직수입한 문구, 인형 등 앙드레 단 아트상품도 함께 선보인다. 문의 062-221-1808.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안녕, 꼬마 물고기'



'내 마음을 줄게'

## 장금이가 만든 궁중음식은

인간문화재 한복려씨 초청  
광주전통문화관 내달 13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6월 13일 오후 1시 일석당과 전통음식체험전수실에서 인간문화재 한복려씨를 초청, 조선시대 궁중음식문화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 아빠, 육아를 말하다

광주여성재단, 오늘 가족정책포럼

(재)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이윤자)은 29일 오후 2시부터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제3차 광주여성가족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

가능보유자인 한씨는 한식유네스코인류무형유산등재추진위원, 문화여성위원회위원, 무형유산장조협력위원회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드라마 '대장금', 영화 '식객' 등의 자문으로도 활동했다.

이날 강의는 궁중음식의 배경, 궁중의 주방과 조리인, 상차림 종류, 드라마 '대장금'과 조선왕조 궁중음식 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죽순채와 소면' 시연으로 진행된다.

강의 참가를 원하는 지역민과 음식전문가는 6월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무료.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

을 모으고 있는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아빠, 육아를 말하다'로 정했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아빠육아를 직접 실천하고 있는 정우영의 주제발표와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했던 아빠, 일과 육아 병행 중인 아빠들의 자유토코로 이루어진다. 문의 062-670-0521. /김미은기자 mekim@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SINCE 1990

# 이태리 가구 전문점

## 프리미엄 통원목가구 런칭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8-15(동구청 옆)

☎ 1899-0240